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이메일: ws@wspaper.org

이스라엘, 가자지구 병원 폭격

이것이 진짜 테러다!

이스라엘 국가가 가자 지구에 있는 알아흘리 침례병원을 폭격해 최소 500명을 살해했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제2의 '나크바'(대재앙)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나크바는 1948년 시오니즘 무장 병력이 팔레스타인인 80만 명 이상을 상대로 인종 청소를 자행한 사건이다. 이번 병원 폭격 사망자 수는 나크바의 상징적 사건인 데이르 야신 학살 때보다 많다.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은 17일 밤(현지 시각) 사망자 수를 발표했는데, 그 수치는 계속 늘 것이다. 알아흘리 병원이 불길에 휩싸인 사진과 영상이 SNS에 공유됐다. 폭격 직후 현장에 있었던 <알자지라> 특파원 와엘 알다도우는 이렇게 전했다. “남녀노소의 조각난 시신들이 펼쳐진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폭격은 병원 외곽이 아니라 한가운데를 타격했습니다.”

이번 참사를 분명한 분수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본질이 전 세계의 눈앞에 숨김없이 드러났다. “테러리스트”를 겨냥한다면 거짓말도 까발려졌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폭격 책임을 떠넘기려 이슬람 테러 단체가 병원을 폭격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10월 18일 이스라엘로 날아가 네타냐후를 포옹해 주며, 병원 폭격이 “여러분이 아닌 다른 쪽 소행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을 두둔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스라엘 소행이 아니라 증거를 밝히지 않았다.

모두 거짓과 위선으로 진실을 덮기 바쁘다.

그러나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18일 보고서를 내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 병원과 학교를 빈번히 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아흘리 병원 폭격 전까지 이미 57건의 의료시설, 20건 이상의 학교 공습이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가 주민 보호 시설이라고 이스라엘에 위치를 알려 준 곳들도 폭격당했다. 이번 알아흘리 병원 폭격은 예고된 참사였다.

이스라엘이 폭격한 알아흘리 병원에는 아프고 죽어가는 남녀노소로 꽉 차 있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에 맞서고 이스라엘군에 수모를 줬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집단 처벌하려는 것이다.

서방 지배자들은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연대하는 것을 유대인 혐오라거나 테러 지지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는 참말이 아니다.(이번 호에 실린 '이스라엘 비판을 유대인 배척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를 보시오.)

윤석열 정부도 이스라엘의 만행에 저지를 보내고 있다. 최근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에 친구가 되어 준 대한민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흥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간인 살상, 납치 등 하마스의 비인도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의 잔혹한 식민 점령을 계속 편드는 모습은 실로 분노스럽다.

정의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알파한 양비론을 폈다.

진보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진보당을 지지하는 자주파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는 입장은 냈다).

그러나 지금은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에 연대하는 행동을 할 때다.

폭격 소식이 전해지자, 이라크 · 요르단 · 레바논 · 튜르키예 · 튜니지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분출했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에 협조적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대중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 마흐무드 압바스는 부랴부랴 바이든과의 만남을 취소했다. 이제 가자 지구의 항전이 서안 지구로 번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의 테러를 규탄하며 대학과 일터에서 사람들을 모아 거리 시위에 나서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즉 팔레스타인 저항을 계기로 세계적 인파파(항쟁)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온 힘을 쏟자.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전쟁의 역풍을 두려워한다

제국주의는 살인 기계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운데, 지배계급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체제가 세계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

세계 지배계급들의 잔혹함과 지금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하마스를 전멸시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바이든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려면 팔레스타인 정부가 필요하다. 팔레스타인 국가가 들어설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미국이 제공한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총탄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사지가 찢기는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분노를 달래고 제국주의와 거래할 고분고분한 아랍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이 우려하는 것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유혈 낭자한 전쟁 때문에 그런 고분고분한 아랍 세력이 사태를 정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전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민간인을 보호하고, 안전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 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식량·물·의약품·주거지를 구할 수 있게 하는 등 ... 이런 것들이 준수돼야 한다.”

설리번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안녕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설리번이 진짜로 우려하는 바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다음 논평에서 읽을 수 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의 강력한 무장 정치운동이다. 또, 점령 상태인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폭력이 분출할 위험이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학살을 지지하지만, 제국주의에 맞선 반란이 분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이런 요청은 불안정성의 파장이 이집트로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미국은 러시아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데 주력해 왔는데, 이는 중국과의 대결이라는 자신의 핵심 과제를 수행하

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를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서 미국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이란을 고립시키려 했다.

이 정책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돼, 그 성과로 아랍에미리트 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됐다. 팔레스타인인들은 폭력과 불평등을 약간 줄인다는 모호한 약속만 받은 채 계속 식민 지배 상태에 있을 터였다.

뒤이어 바이든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 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그동안 공들여 구축해 놓은 외교 관계가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

또 다른 우려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경제적 혼란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기업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세계가 수십 년 이래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있다”고 했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는 “이미 화창하지 않은 세계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 계획을 축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확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중동 파견 병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려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을 동지중해로 보내고 있다. 그 항모전단에는 “유도 미사일 순양함 필리핀시함,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그레이터리함, 메이슨함, 제3항공전대, 9개 항공기 편대” 등이 속해 있다. 미국은 지난 일주일 만에 병력 1만 5000명을 중동에 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또 다른 슈퍼파워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과 앞으로 그 시위들에 합류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다. 가자 지구의 참상을 대한 반발감은 기아와 불평등, 비민주적 정권에 대한 분노와 결합될 수 있다. 이는 독재자와 부자들에게 분노의 심판을 내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이집트에서 새로운 혁명을 촉발하거나, 요르단 지배자들을 끌어내리거나, 새로운 세계경제 후퇴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자신의 경비견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벌인 짓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workers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qr code: wspaper.org/subs2

f 노동자연대 @wspaper
o wspaper_org o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a 노동자연대 검색
t 텔레그램 '노동자연대 알리미'

qr code: wspaper.org/online